

##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의 성차

이 해 경<sup>†</sup>

한국사이버대학교

이 연구는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부산, 울산, 대구) 남녀 중학생 3,430명을 대상으로 ABAS-S 청소년행동평가척도(청소년용)를 실시하였다. 가출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ABAS-S의 8개 문제척도와 10개의 중요문항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에서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 남녀 차이가 있었다. 먼저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영향력있는 변인은 10개( $R^2=.51$ )로 나타났다. 지위비행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임신, 낙태, 교사관계문제, 범죄성비행, 성폭력, 청소년성매매, 집단괴롭힘가해, 학교중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영향력있는 변인은 13개( $R^2=.52$ )로 나타났다. 지위비행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폭력학대피해, 낙태, 교사관계문제, 집단괴롭힘피해, 청소년성매매, 범죄성비행, 집단괴롭힘가해, 학업문제, 가족관계문제, 학년, 임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 연구의 의미와 시사점, 제한점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가출, 가출경험, 비행, 청소년문제, 성차

<sup>†</sup> 교신저자 : 한국사이버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4번지 종로비즈웰 216  
E-mail : hglee@mail.kcu.ac

청소년 가출은 학업중단과 같은 교육문제, 생계를 위한 부적절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거나 건강문제를 야기하고(Athey, 1991), 특히 자살, 약물남용, 성매매, 임신, 폭력 등 다양한 비행과 사회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김지혜, 2003;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정혜경, 2000; Kidd, 2007). 따라서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청소년 문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 14,716명(일반청소년 13,770명, 위기청소년 1,597명)을 대상으로 ‘2008청소년유해환경점측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 결과에 따르면, 가출 경험률이 일반청소년은 12.8%, 위기청소년은 7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률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2005년 67.9%, 2006년 67.1%, 2007년 59.2%, 2008년 73.8%) 일반청소년들의 가출 경험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005년 9.9%, 2006년 12.1%, 2007년 12.1%, 2008년 12.8%).

더욱이 최근 청소년 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가출이 초등학교 시기로 점점 빨라지는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충동적인 일회성 가출이 아닌 재가출로 이어지는 반복화 현상, 또한 가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점점 길어지는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상준, 2011).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청소년 가출이 갈수록 저연령화, 반복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나 개입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가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른 청소년문제 분야의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으며 양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청소년 가출의 연구동향(정경은, 문성호, 2008)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에 대한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54편(1990년 ~ 2007년) 중에서 가출원인에 대한 연구(29.6%, 16편)는 가출 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 정신건강상태 등의 가출로 인한 문제(33.3%, 18편)연구나, 가출대책에 대한 연구(35.2%, 92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나 관련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의 살펴보면, 다루고 있는 관련 변인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관련 연구들에서 다른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 관련변인(예, 정혜경, 2000; 남영옥, 2001), 가정 관련변인(예, 남미애, 1998), 학교 관련변인(예, 박명숙, 2006), 친구 관련변인(예, 박명숙, 2006), 자살사고(행동)(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비행 또는 문제행동 관련변인(예, 이종화 등, 2006)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개인, 학교, 가정, 학교, 친구 등과 관련된 변인은 많이 분석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비행 또는 문제행동 관련 변인은 많이 분석되지 않았다(예, 주동범, 임성택, 2009). 무엇보다도 이들 연구들은 각 관련 변인들 중 단일요인 혹은 2~3개의 소수 요인을 다룬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청소년 가출은 매우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문제는 문제증후군을 이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에서의 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예, 오승환, 2010)도 있지만, 이 연구 또한 청소년 성매매,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등 최근

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가출의 관련변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력 있는 변인을 규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다른 청소년 가출의 연구동향을 분석해보면, 청소년 가출의 연구대상자를 남녀 청소년을 동시에 포함한 연구들은 다수이지만, 연구대상자를 남자청소년 혹은 여자청소년 중에서 한쪽 성에 한정된 연구는 소수이다. 더욱이 남자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드물지만,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예, 이종화 등, 2006)는 비교적 많다. 특히 청소년 가출에 있어서 남녀집단에 따라 빈도나 평균차이를 비교한 연구(예, 백혜정, 2009)는 있지만, 청소년 가출의 관련변인 혹은 예측변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남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여자청소년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은 가출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이종화, 2004)임을 근거해 볼 때 남자청소년의 경우 분명 임신이 여자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기보다는, 비교적 영향력이 낮은 요인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보다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경험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을 밝히는 것은 청소년 가출의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특히 남녀 차이를 밝히는 것은 남녀에 따른 다른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있는 변인들을 탐색해보고, 이들 변인들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을 예측하는 보다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밝히기 위해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청소년문제로서 청소년가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청소년성매매, 성폭력, 집단괴롭힘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가출경험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양한 문제행동들의 경험에 있어서 청소년가출경험여부와 남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행동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남녀 차이가 있는가?

#### 청소년 가출 및 가출경험의 정의

청소년 가출(runaway)이란,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없이 집을 떠나 있는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주동범, 임성택, 2009).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DSM-II)에서는 가출행위를 성격적으로 이상이 있는 개인들이 허락없이 하루 또는 그 이상동안 집을 떠나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Rubertson, 1992). 따라서 주동범과 임성택(2009)은 청소년 가출을 최소 하루밤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위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행위 모두를 가출로 규정할 바 있다.

청소년 가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runaway)과 가출경험(runaway experience)을 구분하기도 한다. 청소년 중 가출 청소년이란, 집을 나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청소년 쉼터나 보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거나 노숙 또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

나 청소년 중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청소년은 가출 청소년이라기 보다는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다. 가출 혹은 가출경험이라는 용어는 연구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주동범, 임성택, 2009).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경험을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며칠 동안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주로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출보다는 가출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출경험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 가출경험의 실태 및 연구동향

청소년 가출경험 실태는 연구자, 연구시기, 연구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실태를 보고하고 있어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전국의 초, 중,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09한국아동청소년가출실태조사(백혜정, 2009)에서는 청소년가출이 매우 심각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4, 5, 6학년)(2,788명)과 중학생(3,504명), 고등학생(3,458명) 총 9,750명을 대상으로 가출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서 전체 가출경험은 전체 응답자(9,750명) 중에서 8%에 달했으며, 각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3.1%, 중학생의 8.1%, 고등학생의 12.1%가 각각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일 년 간의 가출경험’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1.4%, 중학생의 4.2%, 고등학생의 5.5%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일 년 간의 가출경험’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

면, 남학생(5%)이 여학생(2.6%)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았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2008)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일반청소년들과 현재 가출하여 쉼터나 소년원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가출경험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중고등학생 14,716명을 대상으로 ‘2008청소년유해환경점검총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가출경험률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일반청소년(13,770명)의 12.8%, 소년원과 쉼터에 있는 위기청소년(1,597명)의 73.8%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가출경험’은 가출 경험자 중에서 일반청소년의 43.7%, 위기청소년의 68.1%가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가출경험률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2005년 67.9%, 2006년 67.1%, 2007년 59.2%, 2008년 73.8%) 일반청소년들의 가출경험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005년 9.9%, 2006년 12.1%, 2007년 12.1%, 2008년 12.8%). 남녀를 비교해 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남자청소년(14.9%)이 여자청소년(10.4%)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지만, 반면에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여자청소년(86.7%)이 남자청소년(69.3%)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았다.

#### 가출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 인구통계학적인 요인들

**성별.** 청소년 가출은 성별과도 관련된다(백혜정, 2009; 주동범, 임성택, 2009). 전국의 중고등학생 9,750명을 대상으로 남녀 청소년의 가출 경험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10%)이 여학생(6%)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백혜정, 2009). 한편 반대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실태조사에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13,770명)의 12.8%, 쉼터나 소년원에 있는 위기청소년(1,597명)의 73.8%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를 비교해 보면,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청소년(14.9%)이 여자청소년(10.4%)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지만, 반면에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여자청소년(86.7%)이 남자청소년(60.9%)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았다.

**학교급과 학년(나이).** 2009아동청소년가출실태조사(백혜정, 2009)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전체 청소년(9,750명)의 약 8%(780명)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교(2,788명)의 3.1%, 중학생(3,504명)의 8.1%, 고등학생(3,458명)의 12.1%로 나타나 초등학교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가출경험이 더 많았다. 즉, 이 결과는 학년(나이)이 올라갈수록 가출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일반청소년들(13,770명)의 가출해본 경험은 남자청소년(14.9%)이 여자청소년(10.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가출의 연구들의 대부분이 성별, 학교급(학년)에 따른 가출경험의 빈도 혹은 평균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나이 혹은 학교급과 학년(나이)이 청소년가출을 예측하는 중요요인임을 직접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가족관련요인

청소년 가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는 가족관련요인이다. 특히 가족들 간의 문제 혹은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 가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전국의 중고등학생 14,716명을 대상으로 한 유해환경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들(13,770명)의 가출이유 1순위가 '부모와의 갈등'(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원인에 대한 성차를 비교해보면, 부모와의 갈등은 남자청소년(18.0%)보다 여자청소년(21.7%)의 경우 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출연구들에서도 청소년 가출이유의 60-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부모의 알코올중독, 가족갈등, 폭력과 성학대, 방임 등의 가족요인으로 나타났으며(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남미애, 1998; Rew, Taylor- Seehafer, Thomas and Yockey, 2001), 부모와 대화가 안 통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가출경험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주동범, 임성택, 2009). 또한 가족 내 학대는 청소년들의 상습적 가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 학교관련요인

**학업문제.** 학교관련요인으로 학업문제와 교사관계문제가 청소년 가출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학업문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학교 성적 혹은 학업성취도가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박영숙, 2006; 주동범, 임성택, 2009). 특히 낮은 학업성취도는 청소년 가출에 중요한 관련요인이며(박영숙, 2006), 실제 가출 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적이 낮았다(주동범, 임성택, 2009;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5). 보건복지가족부(2008) 실태조사

에서는 가출원인에 있어서 일반청소년들(13,770명)의 성차를 비교해보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남자청소년(5.2%)과 여자청소년(5.8%)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학교가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는 남자청소년(8.3%)보다 여자청소년(10.8%)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사관계문제.** 좋지 않는 교사-학생관계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다(박영숙, 2006).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가출원인 중에 하나로 ‘교사와의 갈등’(일반청소년의 1.8%, 위기청소년의 1.4%)을 꼽았다. 이 연구에서 일반청소년들(13,770명) 내에서 성차를 비교해보면, ‘교사와의 갈등’은 남자청소년(1.9%)과 여자청소년(1.6%)이 비슷한 비율로 가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구관련요인

**또래관계문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문제는 또한 가출행동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일탈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고, 또래 동조성이 높으며(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은 좋지 않은 친구관계, 친한 친구들과 문제행동에의 가담 등과 관련된다(박영숙, 2006; Adams 등, 1985). 한편 가출경험의 예측요인으로 성격형이 있는 친구, 임신경험이 있는 친구 등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종화 등, 2006). 특히 Voydanoff와 Donnelly(1999)은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으로 부정적인 또래 압력이 청소년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와 반대로 한국 청소년의 가출에 있어서 실제

친구와 관련된 변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주동범, 임성택, 2009). 실제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실태조사에서도 ‘친구나 선후배간의 문제’는 가출 원인 중에 하나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청소년(2.7%)이 남자청소년(0.9%)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집단괴롭힘 피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또래관계문제의 하위유형으로 볼 수 있다(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3). 한편 가출경험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하게 된 동기가 가족간 불화, 성폭행 피해경험 이외에도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장필화 등, 2001). 실제 아동청소년가출실태조사(백혜정, 2009)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성폭행, 협박을 당한 경험 뿐만 아니라, 집단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778명-남자 507명, 여자 281명) 중에서 가출당시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심하게 맞음(남 4.4% 여 2.2%), 돈이나 물건을 뺏김(남 5.1%, 여 4.3%), 심하게 놀림(남 3.0%, 여 1.8%), 협박(남 3.2%, 여 1.8%), 따돌림(왕따)(남 3.0%, 여 1.1%)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실태에 대한 남녀의 비율 차이는 알 수 없지만, 이 연구의 관심이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 변인이 직접 남녀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 공격행동

**공격행동.** 가출경험은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공격성과 관련된다. 실제 가출과 성격특성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바

있는데, Reilly(1977)는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은 다른 여자청소년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가출실태조사를 한 백혜정(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778명-남자 507명, 여자 281명) 중에서 남을 심하게 때림(남 8.7%, 여 3.9%), 패싸움(남 5.4%, 여 2.5%), 뺨뜯기(남 10.1%, 여 6.4%),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침(남 8.1%, 여 4.6%), 남을 심하게 놀림(남 6.9%, 여 3.9%), 남을 헐박(남 4.9%, 여 4.3%), 다른 친구를 따돌림(남 3.8%, 여 4.6%)의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행동들(남을 심하게 때림, 패싸움, 뺨뜯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침, 남을 심하게 놀림, 남을 헐박, 다른 친구를 따돌림)의 경험에 있어서 따돌림가해경험을 제외하고는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괴롭힘 가해.** 집단괴롭힘 가해문제는 공격행동의 한 하위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 위의 백혜정(2009)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집단따돌림가해(다른 친구를 따돌림) 경험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별을 보면 남자청소년(3.8%)보다 여자청소년(4.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가출경험 청소년들이 가출당시의 문제행동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 가출의 예측변인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비행요인**

**지위비행.** 지위비행(status delinquency)이란, 음주나 흡연, 가출, 무단결석과 등교거부, 학교에서 정한 규칙 어기기 등 청소년의 지위에서 일탈된 행동을 말한다(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7). 청소년 가출이 음주, 흡연 등의 비행 혹은 문제행동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남미애, 1998; 이종화 등, 2006; 주동범, 임성택, 2009). 이종화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 흡연경험, 음주경험, 음란물접촉경험, 성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들이 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들보다 가출경험률이 더 높았다. 또한 이들 변인 중에서 흡연경험, 음주경험, 성경험은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예측요인들이며, 이중 음주경험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 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실태조사에서 일반청소년(13,770명)의 경우, 가출 후 경험하는 행동 중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한 경험비율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흡연의 경우 남자(28.0%)가 여자(21.7%)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의 경우 여자(22.2%)가 남자(21.6%)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일반청소년의 가출 후 경험하는 행동에서 이성과의 혼숙(남자 6.2%, 여자 4.2%), 성관계(남자 4.1%, 여자 1.2%), 성인유혹업소출입(남자 7.3%, 여자 4.1%), 성인유혹업소취업(남자 3.3%, 여자 2.3%) 경험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 볼 때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지위비행의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성비행.** 범죄성비행이란 지위비행과 달리 폭력, 절도, 강도, 약물사용, 청소년성매

때, 성관련비행, 인터넷을 통한 비행 등 형법상 범죄로 볼 수 있는 비행을 말한다(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7).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과 함께 절도, 폭력, 약물,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성 비행 요인들도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이종화 등, 2006).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청소년들(13,770명)의 가출 후 경험행동에서 폭행(남자 8.4%, 여자 4.5%), 돈뺏기(남자 12.1%, 여자 10.9%), 물건훔치기(남자 12.1%, 여자 10.9%) 경험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에 환각약물류사용의 경우 여자청소년(1.3%)이 남자청소년(1.0%)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청소년의 가출은 10대들의 성매매와 연결되어 있다. 남미애(1998)의 연구에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의 약 1/4인 25.3%가 단란주점이나 유흥가 등 유해업소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화(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가출경험은 여자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출이 여자청소년의 성매매를 증가시키고, 또 원하지 않는 임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들도 보고된 바 있다(남영옥, 2001). 또한 가출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하게 된 동기가 가족간의 불화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다(장필화 등, 2001).

한편 청소년가출로 인해 자살, 폭력, 절도, 약물남용, 유흥행위, 임신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다(남미애, 1998; 한상철, 2000; 김지혜, 2005;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청소년가출과 비행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지

적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비행요인이 가출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연구도 있지만, 다양한 비행요인이 청소년들이 가출 후 겪게 되는 또다른 문제들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비행요인들과 청소년가출경험이 어떻게 상호관련되며, 특히 청소년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 남녀 차이를 밝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기타 요인

**폭력학대피해경험.** 청소년 가출의 주된 또 다른 원인으로 가정이나 주변으로부터 받은 폭력 및 학대받은 경험을 들 수 있다. 가출 청소년들의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면 폭력이나 학대피해경험은 주로 가정내 폭력학대경험을 주로 다루어 왔다. 실제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가정 내에서 폭력 혹은 학대받은 경험이 더 많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08; Plass & Hotaling, 1995), 주변으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 또한 더 많았다(백혜정, 2009). 특히 이종화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여자 고등학생들의 가정관련요인으로서 학대 경험 중에서 신체적 학대만이 가출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검증된 바 있다(이종화 등, 2006). 또한 가족 내 학대는 상습적인 가출과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김민정, 1999; 남미애, 1998).

**자살사고 및 자살충동.** 자살사고(충동) 및 자살행동은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다. 노혜련과 동료들(2005)에 따르면 자살사고(충동)나 행동은 가출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보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방 법**

**자료수집 및 절차**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청소년행동평가척도-청소년용 (ABAS-S, Adolescent Behavior Assessment Scales for Self-Report)(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8)(이하 ABAS-S로 칭함) 검사에 참여한 전국의 3,998명의 청소년자료 중에서 학교급과 성별 표기를 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경남지역(부산, 울산, 대구 포함)의 중학생 3,43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선별은 지역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경남지역(부산, 울산, 대구)에 한정하였다. 또한 학교급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중학생만을 선별하였으며, 고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을 선별한 것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이 더 가출경험이 많다는 연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근거한 것이다. 응답자 3,430명 중 남자청소년은 2,067명(60.3%), 여자청소년은 1,363명(39.7%)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3.63세(남자 13.84세, 여자 13.63세)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681명(19.8%), 2학년이 2,539명(74%), 3학년이 209명(6.1%)이었다(표 1).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청소년자기보고용으로 개발된 ABAS-S(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8)의 웹검사와 지필검사를 통해 개인 혹은 단체검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웹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별도의 코딩절차 없이 자동 채점프로그램에 따라 코딩된 자료로 수집하였고, 지필검사로 얻어진 자료는 웹검사 자료양식에 따라 별도의 코딩절차를 거쳤다.

**측정도구**

한국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ABAS-S의 8개 문제척도와 10개의 중요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척도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문제행동을 겪었는지를 4점 척도(0점: 전혀 그런 적이 없다~3점: 항상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된 7개 문제척도와 중요문항의 예는 아래와 같다.

**ABAS-S 문제척도**

**학업문제.** 학업주의문제척도 12개 중에서 주의문제에 대한 7개 문항을 제외한 수업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교과목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다 등의 학업문제 문항 5개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4$ 이었다.

**교사관계문제.** 이 척도는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가 안되거나, 불만이 있거나, 욕을 듣거나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특성			합
성별	남자	2,067명(60.3%)	3,430명
	여자	1,363명(39.7%)	
나이		13.63세(2.16)	
학년	1	681명(19.8%)	
	2	2,539명(74%)	
	3	209명(6.1%)	

해당정보 무기입의 경우, 표 안의 빈도산출에 포함시키지 않음.

맞거나,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행동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선생님과 갈등이 있어서 전학가고 싶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 = .89$ 이었다.

**부모관계문제.** 가족관계문제척도 15개 문항 중 부모와의 갈등, 부모에 대한 반항적 행동 등 부모와의 관계문제에 대한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부모와 생각이 달라서 대화가 안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 = .87$ 이었다.

**또래관계문제.** 이 척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 소외되어 있거나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성 또래와의 관계 문제를 측정하는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 = .86$ 이었다.

**공격행동.**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남을 위협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또래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 행동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남을 위협하거나 못살게 군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 = .84$ 이었다.

**지위비행.** 이 척도는 음주나 흡연, 가출, 무단결석, 등교거부, 학교에서 정한 규칙 어기기 등 청소년들의 지위에서 일탈된 행동 즉, 비행과 관련된 문항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어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 = .87$ 이었다.

**범죄성비행.** 이 척도는 폭력, 절도, 강도, 약물사용, 청소년성매매, 성관련 비행(예, 성폭력, 낙태), 인터넷을 통한 비행 등 형법상으로 범죄로 볼 수 있는 문항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에는 ‘소매치기를 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a = .81$ 이었다.

#### ABAS-S 중요문항

중요문항(critical items)이란, 한국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이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조기개입이나 위기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이다(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8).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출과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하여 ABAS-S의 중요문항 11개 중에서 9개를 선정하였으며, 그 외 임신과 낙태 2개 문항은 이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 가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추가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사용된 중요문항은 집단괴롭힘가해, 집단괴롭힘피해, 청소년성매매, 성폭력, 임신, 낙태, 학교중퇴, 무단결석, 가출, 폭력·학대피해경험, 자살충동의 11개의 단일 문항으로 구성(표 2)되었다. 이 중에서 가출 문항은 이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폭력학대피해경험과 자살충동 문항은 ABAS-S의 문제척도 외에 별도로 추가된 문항이고, 나머지 10개 문항들은 모두 문제척도 내에 포함된 문항들이다.

**가출경험과 가출 유/무경험 집단 구분**

이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가출경험은 ABAS-S의 지위비행에 포함된 중요문항(표 1 참조)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며칠 동안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다’이다.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자주 경험하는 정도를 4점 척도(‘0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평정점수를 가출경험의 정도로 삼았다.

가출경험 유무 집단 구분은 가출경험 문항에서 0점에 평정한 경우를 ‘무경험’집단으로, 1점에서 3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유경험’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 가출경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남녀의 가출경험의 평균을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남녀 청소년의 가출유경험과 무경험집단의 빈도분석을 위해 빈도자료를 산출하고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에서 가출경험유무집단과 남녀집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출 유경험과 무경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남, 여 집단별로 평균을 산출하여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청소년들의 가출행동을 예측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출 문항을 중

표 2. 중요문항 분류와 내용

ABAS-S 문제척도명	ABAS-S 중요문항명	문항 내용
공격행동	집단괴롭힘가해	또래들(선후배 포함)을 괴롭힌다
또래관계	집단괴롭힘피해	또래들(선후배 포함)이 나를 활동이나 모임, 놀이에 고의로 끼워주지 않고 따돌린다
또래관계	집단괴롭힘피해	또래들(선후배 포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지위비행	학교중퇴	학교를 중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지위비행	무단결석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
지위비행	가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며칠 동안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다
범죄성비행	청소년성매매	돈을 받고 (혹은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
범죄성비행	성폭력	원치 않는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혹은 당한) 적이 있다
범죄성비행	임신	(여자의 경우)임신한 경험이 있다. (남자의 경우)상대 여자를 임신시킨 경험이 있다.
범죄성비행	낙태	(여자의 경우)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남자의 경우) 나와서 성관계로 상대 여자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폭력·학대피해	주변 사람이나 가족으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	자살사고(충동)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속변인으로 하고, ABAS-S의 다른 문제행동들과 중요문항, 학년을 포함한 18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청소년 가출경험 실태

청소년들이 갖는 가출유무경험집단에 따른 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3)를 살펴보면, 전체 가출무경험집단은 3,207명(93.5%)이었고, 가출유경험집단은 223명(6.5%)이었다. 남녀를 구분하여 가출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집단은 6.6%, 여자청소년집단은 6.5%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가출 유무경험에 따른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가출경험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09이었고, 가출경험의 평균은 남녀 집단이 동일하였다.

### 가출유/무경험집단과 남녀 집단에 따른 문제

### 행동에서의 경험 차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에서의 가출유/무경험집단과 남녀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출 유경험과 무경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남, 여 집단별로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변량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출유무경험집단 주효과(A)는 모든 문제척도와 중요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을 해석해보면, 모든 문제척도와 중요문항에서 가출유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보다 문제행동 경험이 더 많았다.

성별 주효과(B)에 따른 평균을 해석해보면, 남녀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서 달랐다.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학습문제, 부모관계문제, 교사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지위비행, 무단결석, 학교중퇴, 자살충동에서 문제행동 경험이 더 많았다. 반면에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집단괴롭힘피해, 집단괴롭힘가해, 범죄성비행, 청소년성매매, 폭력학대피해에서 문제행동 경험이 더 많았다.

가출유무경험집단과 성별에 따른 2원 상호

표 3. 남녀에 따른 가출경험 평균+(SD)과 빈도(%)

가출경험	남자	여자	전체	# $\chi^2$
평균	.09( .38)	.09( .38)	.09( .38)	t = .06
0점(전혀 그런적이 없다)	1931명(93.4%)	1,276명(43.6%)	3,207명(93.5%)	$\chi^2 = 1.83$
1점(가끔 그렇다)	102명( 4.9%)	61명( 4.5%)	163명( 4.8%)	
2점(자주 그렇다)	19명( .9%)	18명( 1.3%)	37명( 1.1%)	
3점(항상 그렇다)	15명( .7%)	8명( .6%)	23명( .7%)	
무경험	1,931명(93.4%)	1,276명(93.6%)	3,207명(93.5%)	$\chi^2 = .05$
유경험	136명( 6.6%)	87명( 6.4%)	223명( 6.5%)	
전 체	2,067명(100%)a	1,070명(100%)	3,430명(100%)	

a 괄호안의 비율은 각 남녀 집단내 합이 100%인 비율을 나타냄.

+ 가출경험의 평균 점수는 '0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는 것을 의미함.

표 4. 가출유/무경험집단과 남녀 집단별 다른 문제행동들의 경험 평균(SD)과 집단간 차이 요약

문제척도명 중요문항	가출경험									F		
	무			유			전체			집단(A)	성별(B)	A*B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부모관계문제	.46(.45)	.59(.53)	.51(.49)	1.07(.66)	1.27(.65)	1.15(.66)	.50(.50)	.63(.56)	.55(.53)	342.93**	22.00**	1.08
학업문제	.58(.57)	.66(.62)	.61(.59)	1.37(.81)	1.72(.80)	1.51(.82)	.63(.62)	.73(.67)	.67(.65)	470.57**	26.35**	9.52*
교사관계문제	.24(.36)	.27(.41)	.26(.38)	.65(.58)	.91(.62)	.75(.61)	.27(.39)	.32(.45)	.29(.42)	346.76**	27.94**	16.49**
도래관계문제	.28(.34)	.31(.38)	.30(.36)	.46(.48)	.54(.62)	.49(.54)	.30(.36)	.32(.40)	.31(.38)	59.09**	3.70 <sup>+</sup>	1.41
괴롭힘피해	.09(.29)	.07(.25)	.08(.28)	.33(.56)	.26(.49)	.30(.54)	.11(.32)	.08(.28)	.09(.30)	102.42**	4.62 <sup>*</sup>	1.17
공격행동	.28(.28)	.23(.26)	.26(.27)	.71(.48)	.71(.46)	.71(.46)	.31(.31)	.26(.30)	.29(.31)	522.88**	1.32	1.82
괴롭힘가해	.11(.34)	.07(.31)	.09(.33)	.54(.74)	.43(.68)	.50(.72)	.14(.40)	.09(.35)	.12(.38)	236.27**	7.22 <sup>*</sup>	1.36
지위비행	.11(.20)	.16(.27)	.14(.33)	.84(.70)	1.21(.68)	.99(.71)	.17(.40)	.23(.40)	.19(.36)	1916.21**	97.05**	60.65**
무단결석	.14(.44)	.23(.58)	.17(.50)	.79(1.04)	1.14(.99)	.93(1.03)	.18(.53)	.29(.65)	.22(.58)	404.46**	31.04**	10.65**
학교중퇴	.05(.27)	.05(.30)	.05(.28)	.80(1.01)	1.18(1.05)	.95(1.04)	.09(.41)	.12(.48)	.11(.44)	1235.05**	52.17**	45.06**
범죄성비행	.03(.12)	.02(.08)	.03(.10)	.23(.37)	.18(.32)	.22(.37)	.04(.16)	.03(.12)	.04(.14)	377.35**	10.11**	3.80 <sup>*</sup>
성폭력	.01(.14)	.01(.27)	.01(.14)	.16(.49)	.13(.33)	.15(.44)	.02(.19)	.02(.17)	.02(.18)	112.05**	1.92	2.13
성매매	.01(.15)	.01(.11)	.01(.13)	.13(.50)	.05(.26)	.10(.42)	.02(.19)	.01(.12)	.02(.17)	45.15**	14.54**	11.89**
낙태	.01(.14)	.01(.08)	.01(.12)	.08(.37)	.06(.35)	.07(.36)	.01(.16)	.01(.12)	.01(.15)	35.20**	1.71	.88
임신	.00(.07)	.01(.11)	.00(.09)	.13(.49)	.13(.48)	.13(.49)	.01(.15)	.01(.16)	.01(.15)	128.43**	.01	.00
**폭력학대피해	.07(.32)	.06(.28)	.07(.30)	.28(.66)	.46(.76)	.35(.71)	.09(.35)	.08(.35)	.09(.35)	156.08**	10.97**	16.72**
**자살충동	.28(.49)	.49(.70)	.36(.63)	.68(.85)	1.16(.85)	.87(.89)	.31(.60)	.53(.73)	.40(.67)	137.89**	56.38**	8.65**

\* $p < .05$ . \*\* $p < .01$ . +  $p = .06$

\*\*중요문항. 폭력학대경험과 자살충동 문항은 ABASS 본 척도인 문제척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추가된 문항임.

작용효과가 학업문제, 교사관계문제, 지위비행, 무단결석, 학교중퇴, 범죄성비행, 청소년성매매, 폭력학대피해, 자살충동에서 유의하였다. 먼저 인터넷중독에서의 2원 상호작용효과(A\*B)를 개별적으로 해석해보면, 학업문제는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58)과 여자청소년(M=.66)이 비슷하게 적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1.37)보다 여자청소년(M=1.7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런 경향은 교사관계문제, 지위비행, 무단결석, 학업중퇴, 폭력학대피해, 가출충동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교사관계문

제도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24)과 여자청소년(M=.27)이 비슷하게 적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65)보다 여자청소년(M=.9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지위비행에서도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11)과 여자청소년(M=.16)이 비슷하게 적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84)보다 여자청소년(M=1.2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무단결석에서도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14)과 여자청소년(M=.23)이 비슷하게 적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남

자청소년(M=.79)보다 여자청소년(M=1.1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학업중퇴는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05)과 여자청소년(M=.05)이 동일하게 적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80)보다 여자청소년(M=1.18)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폭력학대피해경험도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07)과 여자청소년(M=.06)이 비슷하게 적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28)보다 여자청소년(M=.46)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가출충동은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28)보다 여자청소년(M=.49)이 많은 반면

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가출무경험집단보다 남녀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남자청소년 M=.68)보다 여자청소년 M=1.16)이 더 가출충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한편 범죄성비행과 청소년성매매에서는 가출유무집단과 남녀의 2원 상호작용효과에서 평균차이 경향이 달랐다. 범죄성비행은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M=.03)보다 여자청소년(M=.20)이 많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여자청소년(M=.18)보다 남자청소년(M=.23)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청소년성매매에서는 가출무경험집단에서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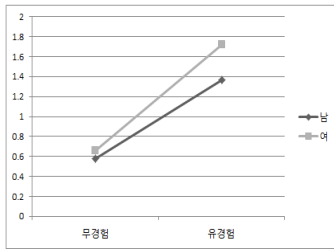


그림 1. 학업문제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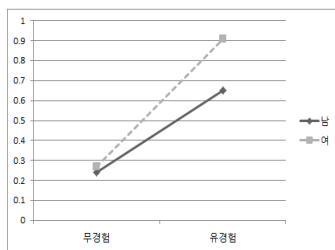


그림 2. 교사관계문제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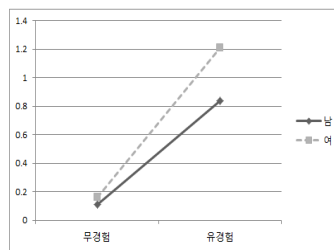


그림 3. 지위비행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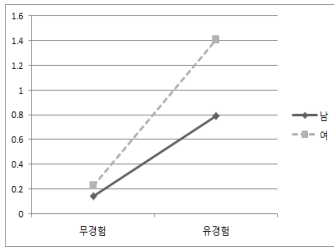


그림 4. 무단결석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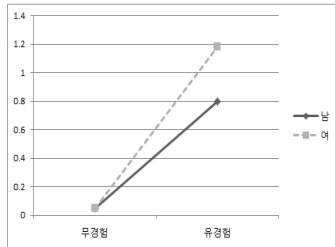


그림 5. 학업중퇴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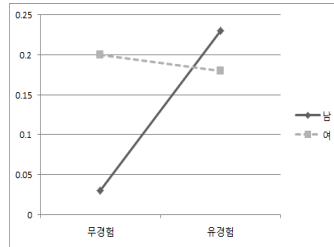


그림 6. 범죄성비행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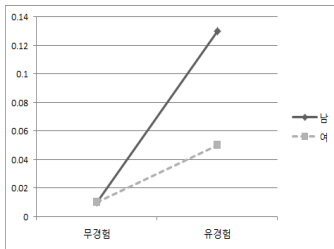


그림 7. 청소년성매매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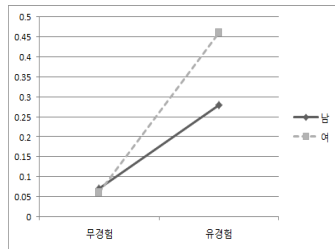


그림 8. 폭력학대피해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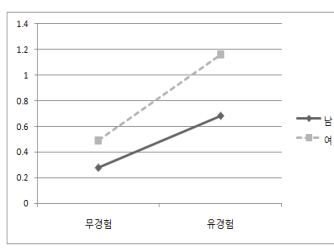


그림 9. 자살사고(충동)의 가출유무집단×남녀 평균

자청소년(M=.01)과 여자청소년(M=.01)이 동일하게 적은 반면에, 가출유경험집단에서는 여자청소년(M=.05)보다 남자청소년(M=.13)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성차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출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ABAS-S의 다른 문제행동들과 중요문항, 학년을 포함한 17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이 연구에서의 연구문제가 가출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다른 문제행동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방식을 사용하였다(표 5).

먼저 전체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은 12개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변인이 가출경험에 대한 설명력은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요인 순으로 살펴보면 지위비행( $\beta = .390$ )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beta = .283$ ), 임신( $\beta = .105$ ), 교사관계문제( $\beta = -.091$ ), 범죄성비행( $\beta = .084$ ), 또래관계문제( $\beta = -.057$ ), 학업문제( $\beta = .046$ ), 학년( $\beta = .041$ ), 성폭력( $\beta = .041$ ), 폭력학대피해( $\beta = .040$ ), 성별( $\beta = -.037$ ), 학교중퇴( $\beta = .033$ )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전체 회귀분석에서 성별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가출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남녀를 구분하여 예측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관련변인들의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따로 구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제

시하였다. 먼저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은 10개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지위비행( $\beta = .393$ )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beta = .264$ ), 임신( $\beta = .157$ ), 낙태( $\beta = -.110$ ), 교사관계문제( $\beta = -.079$ ), 범죄성비행( $\beta = .079$ ), 성폭력( $\beta = .075$ ), 청소년성매매( $\beta = .062$ ), 집단괴롭힘가해( $\beta = .052$ ), 학교중퇴( $\beta = .04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변인이 청소년 가출경험에 대한 설명력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은 13개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지위비행( $\beta = .462$ )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beta = .302$ ), 폭력학대피해( $\beta = .110$ ), 낙태( $\beta = .106$ ), 교사관계문제( $\beta = -.105$ ), 집단괴롭힘피해( $\beta = -.098$ ), 청소년성매매( $\beta = -.082$ ), 범죄성비행( $\beta = .079$ ), 집단괴롭힘가해( $\beta = -.073$ ), 학업문제( $\beta = .071$ ), 가족관계문제( $\beta = -.063$ ), 학년( $\beta = .058$ ), 임신( $\beta = .053$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3개 변인이 청소년 가출경험에 대한 설명력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투입된 변인들은 남녀 청소년의 가출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력(남자청소년  $R^2 = .51$ , 여자청소년  $R^2 = .52$ )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향력을 갖는 변인들에는 공통요인도 있지만 차이요인도 있었다. 공통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집단 둘다 지위비행, 무단결석은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1, 2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들의 순위는 달랐지만 임신, 낙태, 교사관계문제, 범죄성비행, 집단괴롭힘가해, 청소년성매매 역시 남녀집단 모두에서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표 5. 가출행동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변 인	B	Beta	t	p
<b>전체</b> (Constant)	-.068		-3.579	.000
지위비행	.428	.390	18.189	.000
무단결석	.242	.283	17.355	.000
임신	.260	.105	7.830	.000
교사관계문제	-.083	-.091	-5.733	.000
범죄성비행	.220	.084	5.446	.000
또래관계문제	-.057	-.057	-4.089	.000
학업문제	.027	.046	2.931	.003
학년	.032	.041	3.239	.001
성폭력	.088	.041	3.179	.001
폭력학대피해	.043	.040	2.961	.003
성별	-.028	-.037	-2.986	.003
학교중퇴	.022	.033	2.155	.031
R <sup>2</sup> = .50, F = 279.60, p < .01				
<b>남자</b> (Constant)	-.025		-3.460	.001
지위비행	.476	.393	15.213	.000
무단결석	.242	.264	12.883	.000
임신	.404	.157	8.556	.000
낙태	-.265	-.110	-4.418	.000
교사관계문제	-.077	-.079	-4.128	.000
범죄성비행	.188	.079	3.385	.001
성폭력	.152	.075	4.496	.000
청소년성매매	.122	.062	2.438	.015
집단괴롭힘가해	.050	.052	2.967	.003
학교중퇴	.029	.040	2.101	.036
R <sup>2</sup> = .51, F = 215.895, p < .01				
<b>여자</b> (Constant)	-.105		-3.391	.001
지위비행	.452	.462	13.015	.000
무단결석	.237	.302	11.691	.000
폭력학대피해	.120	.110	4.810	.000
낙태	.330	.106	4.565	.000
교사관계문제	-.087	-.105	-3.957	.000
집단괴롭힘피해	-.134	-.098	-4.604	.000
청소년성매매	-.252	-.082	-3.416	.001
범죄성비행	.254	.079	3.036	.002
집단괴롭힘가해	-.078	-.073	-3.167	.002
학업문제	.040	.071	2.902	.004
가족관계문제	-.044	-.063	-2.532	.011
학년	.046	.058	2.941	.003
임신	.122	.053	2.467	.014
R <sup>2</sup> = .52, F = 111.423, p < .01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차이요인을 살펴보면, 성폭력, 학교중퇴는 여자청소년과 달리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만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폭력학대피해, 집단괴롭힘피해, 학업문제, 가족관계문제, 학년은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만 가출경험의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며, 예측변인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 가출경험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다양한 문제행동들의 경험에 있어서 청소년가출경험여부와 남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셋째,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행동들의 영향력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가출경험 실태

먼저 청소년 가출경험을 실태를 알아보고자 가출경험실태를 분석하였다(표 3). 이 연구의 전체 연구대상자 3,430명 중에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은 3,207명(93.5%)였고, 나머지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은 223명(6.5%)이었다.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 내에서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136명(6.6%), 여자청소년은 87명(6.4%)으로 나타나 가출경험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가출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가출경험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많다는 연구결과(백혜정, 2009)와는 다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연구에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고, 소년원이나 쉼터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다는 결과와도 다른 결과이다. 이런 가출경험 실태에서 불일치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경남지역에 한정하여 선정되었지만, 선행연구(백혜정,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8)들은 전국규모의 연구이기에 때문에 가출경험률에서의 성차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 가출유무집단과 남녀집단에 따른 문제행동에서의 경험 차이

이 연구에서는 가출유무집단과 남녀집단에 따른 문제행동의 경험차이를 분석하였다. 문제행동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해석해 보면,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학습문제, 부모관계문제, 교사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 지위비행, 무단결석, 학교중퇴, 자살충동에서 문제행동 경험이 더 많았다. 반면에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집단괴롭힘피해, 집단괴롭힘가해, 범죄성비행, 청소년성매매, 폭력학대피해에서 문제행동 경험이 더 많았다. 문제행동 경험에서 특징적인 점은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대인관계문제(부모관계문제, 교사관계문제, 또래관계문제)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폭력과 관련된 문제(집단괴롭힘 피해와 가해, 폭력학대피해)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

었다. 한편 비행의 수준에 있어서도 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범죄성비행(청소년성매매 포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지위비행(무단결석, 학교중퇴 포함)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가출유/무경험집단과 성별에 따른 2원 상호작용효과는 학업문제, 교사관계문제, 지위비행, 무단결석, 학교중퇴, 범죄성비행, 청소년성매매, 폭력학대피해, 자살사고(충동)에서 유의하였다. 평균차이 경향을 분석해보면, 남녀집단에 따른 차이가 가출무경험집단보다 가출유경험집단에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에서 가출무경험집단보다 가출유경험집단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범죄성비행, 청소년성매매에서 나타났다. 반면에 2원 상호작용효과를 보인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가출무경험집단보다 가출유경험집단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경험차이에서 자살사고(충동)는 가출무경험집단보다 가출유경험집단에서, 남자청소년( $M=.68$ )보다 여자청소년( $M=1.16$ )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폭력학대피해를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은 가정에서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학대의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Ferguson & Lynsky, 1995)에서 지지하고 있다.

####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에서의 성차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을 구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회귀분석결과에서,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은 12개로 나타났다( $R^2=.50$ ). 가출경험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지위비행( $\beta=.390$ )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beta=.283$ ), 임신( $\beta=.105$ ), 교사관계문제( $\beta=-.091$ ), 범죄성비행( $\beta=.084$ ), 또래관계문제( $\beta=-.057$ ), 학업문제( $\beta=.046$ ), 학년( $\beta=.041$ ), 성폭력( $\beta=.041$ ), 폭력학대피해( $\beta=.040$ ), 성별( $\beta=-.037$ ), 학교중퇴( $\beta=.033$ )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다. 특히 성별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나 가출경험의 예측변인 분석에서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녀에 따른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남녀집단에 따라 가출경험의 예측변인에 있어서 공통요인과 차이요인이 있었다. 공통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집단 둘다에서 지위비행, 무단결석은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1, 2위 요인이라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그 외에도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의 정도는 다르지만 임신, 낙태, 교사관계문제, 범죄성비행, 집단괴롭힘가해, 청소년성매매 역시 남녀집단 모두에서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차이요인으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성폭력, 학교중퇴가 중요한 예측변인이었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폭력학대피해, 집단괴롭힘피해, 학업문제, 가족관계문제, 학년이 중요한 예측변인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가출경험의 예측변인에 있어서 남녀의 공통요인과 차이요인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방안의 모색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측변인의 차이요인에서 남자청소년

의 경우 성폭력이, 여자청소년의 경우 폭력학대피해경험이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폭력 문항(‘원치 않는 사람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혹은 당한) 적이 있다’)은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단일문항으로 묻고 있어 남자청소년의 가출경험의 예측변인으로서의 ‘성폭력’의 의미는 ‘성폭력가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한편 여자청소년의 경우 폭력학대피해경험은 일반적인 폭력과 학대피해를 포함한 ‘성’폭력과 ‘성’학대를 포함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남자청소년은 ‘성폭력가해’ 경험이, 여자청소년은 ‘성’폭력피해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예측변인에서 남녀 모두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은 가출경험의 공통적인 예측변인이었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만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보다 더 설명력이 높은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녀 청소년 모두 집단괴롭힘 문제는 가출경험과 직접 관련되지만,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보다 더 민감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남자청소년과 달리 가족관계문제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관계문제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에게 가출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 민감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출경험의 예측변인 분석에서 이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들 중에 전체, 남자집단, 여자집단 모두에서 예측변인이 되지 않는 변인은 2가지 - 공격행동(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을 제외한), 자살충동 - 였다. 공격행동이 가출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해석해보면,

청소년 가출경험에서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은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지만,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격행동은 청소년 가출경험에서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자살충동의 경우는 청소년 가출이 자살사고나 충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는 선행연구(예,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Kidd, 2007)와는 비일관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행동의 경험차이에서 가출유경험집단이 무경험집단보다,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자살사고(충동)이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청소년 가출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 가출의 시작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가출의 장기화, 반복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출경험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많다는 실태(보건복지가족부, 2008)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개입방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이 자살, 임신, 성매매, 약물남용, 폭력 등 사회적 폭력과 관련되어 있어 청소년 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적, 교육적 개입이 시급하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개입 및 대처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개입방안의 모색에서는 여자청소년의 가출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임신, 낙태, 청소년성매매, 폭력학대피해경험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인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임신, 낙태에 대해서는 미혼모시설의 확충, 학교복귀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에 개입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치유프로그램의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적용을 높일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사용하여 가출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행동들과 중요문항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연구라는 점에서 청소년 가출의 상대적으로 중요한 예측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가출의 예측변인이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여 남녀에 따라 다른 개입방안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갖는 이런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에서 오는 한계로 인해 경남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표집으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집에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은 포함하지 못했다. 이 또한 후속연구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007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  
김민정 (1999). 여학생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 송민경 (2009). 단기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청소년학연구, 16(1), 343-370.  
김지혜 (2003). 가출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99-121.  
김지혜 (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207-234.  
남미애 (1998). 여성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 63-90.  
남영옥 (2001).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선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2), 143-172.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5-34.  
박명숙 (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백혜정 (2009). 2009 한국 아동청소년 가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오승환 (2011). 청소년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이상준 (2011).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 위험·보호요인의 효과-가출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201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17-137.  
이종화 (2004).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예측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중화, 김경희, 김희영, 정혜경 (2006). 여자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3(3), 161-179.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4).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47-170.
-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8). ABAS-S 청소년행동평가척도(청소년용): 상담을 위한 활용.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장필화, 김애령, 백재희, 원미혜 (2002).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경은, 문성호 (2008). 청소년가출에 대한 동향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1), 219-241.
- 정혜경 (2000).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동범, 임성택 (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이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51-72.
- 한상철 (2000). 가출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2, 29-63.
- Athey, J. L. (1991). HIV Infection homeless adolescent, *Childwelfare*, LXX(2), 591-521.
- Adams, D. M., Overholser, J. C., & Spirito, A. (1985). Stressful life event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uicide attemp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9, 43-48
- Kidd, S. A. (2007). Youth Homeless and Social Stigm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3), 291-299.
- Ferguson, D. & Lynsky, M. (1995).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in a Birth Cohort of 16-year-old New Zealanders. *The American Journal of Academy Psychiatry*. Vol. 34.
- Plass, P. S. & Hotaling, G. T. (199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unning away: Childhood experience of the parents of runawa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35-348.
- Reilly, P. P. (1977). What make adolescents girls free from their home? *Clinical Pediatric*, 17(2), 241-260.
- Rew, L. M., Taylor-Seehafer, N. Y. Thomas & R. D. Yockey (2001). Corrates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 Robertson, J. M. (1992). Homeless and Runaway Youth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Robertson, M. J., & Greenblatt, M.(eds.), *Homelessness: A 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Plenum.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3), 328-349.

1 차원고접수 : 2011. 8. 8.  
 심사통과접수 : 2011. 9. 9.  
 최종원고접수 : 2011. 9. 22.

## Gender Differences on Predicting Variables of Runaway Experiences among Adolescents

Haegyong Lee

Korea Cyber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gender difference on predicting variables on runaway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Total 3,430 middle school students in Gyungnam area completed ABAS-S, the scale consisted of eight problem behaviors and ten critical items of adolescents. The results of a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re were also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First in male adolescents the significant predicting variables influence on runaway experience showed 10 variables( $R^2=.51$ ). In that, the biggest influence on runaway experience was status delinquency, followed by playing truant, pregnancy, abortion, teacher relations problem, criminal delinquency,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bullying bullies experience, drop out of school. In female adolescents the significant predicting variables influence on runaway experience showed 13 variables( $R^2=.52$ ). In that, the biggest influence on runaway experience was status delinquency, followed by playing truant, violence/abuse victims experience, abortion, teacher relations problem, bullying victims experience, prostitution, criminal delinquency, bullying bullies experience, learning problems, parent relations problem, grade, pregnancy. In discussion were discussed mea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runaway, runaway experience, delinquency, adolescent problem, gender difference